

## 추석연휴 호남 밥상민심 잡아야 대세 잡는다

### 뉴스 초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지역별 순회 경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예비 후보 진영에서는 경선 판세를 사실상 결정지을 '호남 표심'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호남지역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 '굳히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뒤를 쫓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진영에서는 호남지역 경선에서부터 '역전 드라마'를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후보들 주자들도 호남지역 경선에서 기적 같은 반전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 지사 측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1위 후보를 향한 각종 네거티브 공세가 펼쳐졌지만 별다른 변동없이 지지율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지역별 순회 경선 진입 전에 타 후보들과의 격차를 더

### 민주당 지역별 순회경선 2주 앞, 후보들 '호남 표심 확보' 총력전 이재명 굳히기·이낙연 뒤집기...후발 주자들도 반전 드라마 기대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전·충남(9월4일), 세종·충북(9월5일) 지역 순회 경선과 1차 선거인단 투표(9월12일)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초반 판세를 제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광주·전남(9월25일), 전북(9월26일) 경선과 2차 선거인단 투표(10월3일)에서 승리한다면 사실상 경선 판이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기세를 모아 마지막 수도권 순회 경선에서도 여유있게 승리하는 등 과반 지지를 획득,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 "호남 민심은 결국 본선 경쟁력과 개혁성을 보고 최종 지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결국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탔으나 최근 정세 국면을 보이고 있는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지역별 순회 경선에서의 역전 드라마를 장담하고 있다. 근거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성적·전략적 투표'를 들고 있다. 본선 경쟁력이 '불안한' 이 지사보다는 '준비된' 이 전 대표가 크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가 육설, 맥방 논란은 물론 기본 시리즈 공약 등에서 야권에 오히려 더 쉬운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관리당원과 선거인단이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전략적 선택에 나설 것이라는 논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 측에서는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 경선과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당내 주류인 친문 진영의 지원과 후보단일화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둔 이달 말부터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의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은 "광주·전남은 노풍(노무현 바람)의 진원지"라며 "광주·전남지역 순회 경선에서부터 역전의 드라마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발 주자들도 호남 민심의 선택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호남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3위 입성 등 반전의 드라마를 쓸 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는 호남의 지지만 확보한다면 막판 기적같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 총리는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지역의 지지 기반도 상

당하다는 점에서 호남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광주지법판사를 지내는 등 광주와의 인연이 깊은 추미애 전 장관도 개혁성이 높은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풍(추미애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노풍의 진원지인 호남에서 '한국 정치의 세대교체'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두관 의원도 '지역주의 타파'의 길을 걸어왔던 진정성을 호남 민심이 알아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호남 민심은 민주당 경선 투표 막판까지 정권재창출을 위한 본선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놓고 지지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여 순회 경선 직전까지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또 추석 연휴 직후 호남 지역 경선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추석 밥상에 올릴 수 있도록 '이슈 파이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전당, 미디어아트 '환상극장'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관에서 만화경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전시 '환상극장'이 펼쳐지고 있다. 로봇과 다중매체(multi-media) 기술을 활용한 이번 전시에서는 다채로운 빛의 예술을 체험할 수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거리두기 3단계 9월 5일까지 2주 연장

### 전남, 백신 접종 인센티브 폐지 밤 10시 이후 편의점 취식 금지

광주와 전남도가 현재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시민들의 방역 피로도가 커진 상황이지만 4차 유행세를 꺾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자책으로 보인다.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사적모임 인원 불포함)가 폐지되고, 밤 10시 이후 편의점 내부·야외 테이블 취식이 금지되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22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지난

20일 정부 방침에 따라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가장 높은 거리두기인 4단계 조치가 2주 연장됐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광주와 전남에서는 직계 가족 모임을 포함한 사적모임 인원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이 기간 모든 행사와 집회 참여 인원은 49인으로 제한된다. 유흥주점·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 시설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금지된다. 카페, 식당에 대해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기존과 같은 수칙이 적용된다. 밤 10시 이후 편의점 내부 취식은 금지된다.

전남도는 특히 학원을 포함한 방역 취약시설에 대해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 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의 교습소다. 코로나19 유행이 휴가철·공복철 여파로 꺾이지 않은 가운데, 개학기 학생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광주에서는 주말인 지난 21일 22명, 22일 오후 2시 현재 11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남에서는 지난 21일 9명, 22일 오후 2시 현재 7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국에서는 22일 새벽 0시 기준, 1628명이 신규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23만6366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발생이 1590명, 해외유입이 38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태풍 '오마이스' 오늘밤 상륙...최대 400mm 폭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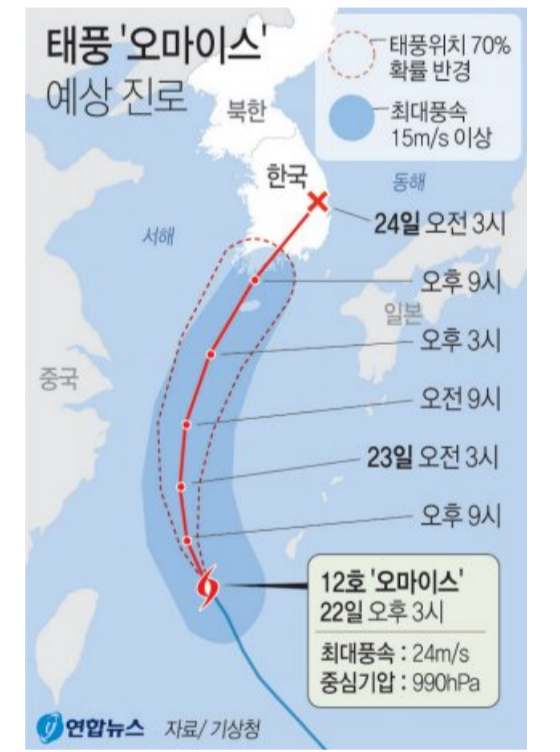
광주와 전남은 23일 오전부터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권에 들어 24일까지 곳에 따라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로 북상 중인 태풍 오마이스가 23일 오후 9시께 여수 남서쪽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는 23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24일까지 100~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이틀간 최대 400mm의 큰비가 예상된다. 23일 정오부터 24일 낮까지는 시간당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고, 이 기간 최대 순간풍속도 시속 100km까지 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비가 집중되는 시간과 밀물 때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 가능성이 있고 강한 바람으로 바다 물결도 5m 이상으로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마이스는 24일 새벽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태풍이 물러가도 비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전남도는 태풍 북상으로 큰비가 예상되자 마을과 인접한 급경사지 150개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선제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배우 손담비가 선택한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 메타그린 골드

### 메타그린 골드 원포인트

- ☑ 고지방·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
- ☑ 항산화와 뼈 건강까지 관리해 부족하기 쉬운 대사 영양 케어
- ☑ 오셀룰로스의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프리미엄 녹차 정제

제품 상담 | 080-023-5454  
구매 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식사 후엔  
메타그린 골드를  
꼭 챙겨요”

바이탈뷰티

